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1.70원 상승한 1,287.30원에 마감

17일 환율은 전일대비 1.70원 상승한 1,287.3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40원 상승한 1,288.0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도 경기 침체 우려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달러화 강세는 주춤하였으나 전반적인 위험회피 심리가 코스피 약세와 함께 달러-원 환율에 상승 압력을 가했다. 장중에는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에 이목이 집중됐다. BOJ는 초완화적 기조를 유지했고 달러-엔 환율은 134.6선까지 레벨을 높였다. 한편, 달러-원은 타 통화에 연동하지 않고 장중 수급에 영향을 받아 상승과 하락 구간을 번갈아 가며 변동성 장세를 기록하다 1,287.3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8.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58.09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88.00	1291.20	1282.60	1287.30	1287.5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70.14	976.26	950.94	950.94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55.98	1361.89	1344.22	1351.40

금일 전망

엔화 가치 추락에 따른 강달러 재개에...1,290원 초반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7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87.30원) 대비 3.70원 상승한 1,290.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엔화 약세가 촉발한 글로벌 달러 강세 영향에 1,290원 회복 및 연고점 테스트가 예상된다. BOJ는 최근 일본 CPI가 2.5%를 기록했음에도 초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엔화는 2%대 급락을 보여주며 강달러 재개를 촉발시켰다. 한편 연준은 통화정책 보고서에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FOMC 성명은 무조건적이라고 강조했고, 대표적인 비둘기 인사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꾸준한 정책 대응이 필요 이상의 통화긴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7월 75bp 인상을 지지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위험자산에 대한 투심을 위축시켰다. 또한 지난주 금요일 일부 역송금으로 추정되는 역외 매수세가 확인된 만큼 오늘도 주식 관련 달러 수요가 원-달러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출업체 네고 및 당국 경계는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86.60 ~ 1294.8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880.73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70원 ↑
	■ 美 다우지수 : 29888.78, -38.29p(-0.1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18.1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2980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